

# '킬러 문항' 없었지만... 곳곳 난도 높은 문항에 엇갈린 반응

## 수능 전 마지막 9월 모의평가 실시

6일 실시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는 교육부가 밝힌대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이 배제되고 EBS와의 연계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생소한 소재나 전문적인 배경지식이 있으면 풀기 쉬운 문제 대신, 지문을 끝까지 읽고 제시된 정보를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와 까다로운 선택지가 변별력 확보에 활용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EBS 대표 강사들은 국어·수학·영어 모두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한 데 비해 광주·전남지역 수험생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어= 정부 방침대로 낮은 소재를 배제해 킬러 문항은 배제됐음에도 변별력은 확보됐다는 평가 나왔다.

EBS 국어 대표 강사인 중동고 최서희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6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소위 '킬러 문항'은 배제됐지만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선지 구성으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6월 모의평가 표준점수 최고점은 136점으로, 다소 평이했다는 평을 받았다.

국어 영역 독서의 경우 킬러 문항이 배제되고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이나 개념을 바탕으로 문항을 설계해 공교육 과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EBS는 설명했다.

EBS가 꼽은 변별력 높은 문항은 독서 영역에서 초정밀 저울의 질량 측정 방법을 다룬 지문에 달린 11번과 조선 후기 신분제 변화를 다룬 지문에 포함된 16번이다.

◇영어= 영어 영역은 관념적인 내용의 지문을 배제하고 전문적인 단어도 빠지는 등 공교육 내 출제 방침을 따랐다는 평가 나왔다.

EBS 영어 대표 강사인 김보라 삼각산고 교사는 영어 영역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6월 모의평가

국어 6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워

영어 까다롭고 수학은 비슷

EBS 연계 강화 속 변별력 확보

광주·전남수험생 "체감 난도 높아"

탐구영역 낮은 지문에 당황도

다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며 "킬러 문항은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은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원점수 90점 이상인 1등급 이상 비율이 7.62%로 작년 수능(7.83%)과 유사한 난이도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EBS는 이번 모의평가에서 한국어로 번역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과도하게 추상적인 표현이나 지나치게 관념적인 소재는 제외됐다고 분석했다. 소위 킬러 문항이 출제되도록 유도한 지문은 없었다는 것이다.

EBS가 꼽은 변별력 있는 문항은 제목 추론 24번, 빈칸 추론 33번과 34번, 글의 순서를 묻는 36번, 문장을 삽입하는 39번 문항이었다.

◇수학= '킬러 문항'이 배제됐다는 공통적인 분석과 함께 난이도에 대해서는 6월 모의평가, 작년 수능과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EBS 수학 대표 강사인 심주석 인천하늘고 교사는 수학 영역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9월 모의평가는 6월 모의평가, 2023학년도 수능과 비슷한 수준에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6월 모의평가 이후 정부가 수학 영역 킬러 문항의 유형으로 지목한 ▲세 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 결합 ▲미적분과 같은 특정 과목 선택 수험생에게 유리한 문항 ▲고교 수준 이상의 학습자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았다고 심 교사는 진단했다.

킬러 문항을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상위권 변별력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중상위권 수험생에게 큰



대입 수능 9월 모의평가일인 6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광덕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담되지 않는 수준에서 문항이 출제됐다고 심 교사는 덧붙였다.

수학 I 14번, 수학 II 22번,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문항의 변별력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EBS는 꼽았다.

심 교사는 "작년(수능) 미적분 30번 문항을 해결하려면 지수함수와 삼각함수를 합성시킨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극소를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했다"며 "미분별 1~3단원을 전부 다 이해해야 했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수험생 반응= 수험생들은 국어 영역의 경우 6월 모의평가보다 체감 난도가 높았다

고 평가했다. 수학은 대체로 쉬웠다는 의견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다른 문제들의 평균적인 난도가 오른 느낌이 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영어는 전반적으로 단어가 어렵고 해석이 까다로운 지문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광주 모교교의 이 모양은 "국어에서 킬러문항은 보통 독서, 문학, 언어와 매체에서 나오는데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 선택지가 모호한 보기가 많아 조금 더 어렵게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어 문항은 평이했지만 6월 모의평가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웠다. 지문이 길어졌고, 단어 난도도 높았다"며 "수학(미적분)에서는 킬러·준킬러급 4문항이 제각각 정

도로 쉬웠다"고 평가했다.

최 모양도 "수학은 킬러 문항인 22번, 30번이 6월 모의고사의 준킬러 문항의 난도로 내려갔다.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없었다"고 진단했다.

전남 모교 박 모양은 "국어, 영어, 수학 등 핵심과목이 지난 6월 모의고사 대비 전체적으로 쉬웠다"며 "확실히 수학(확률과 통계)은 체감할 정도로 쉬웠다"면서도 "사회탐구영역(윤, 생) 확실히 어려워졌고 낮은 지문들이 많이 출제됐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장영명 기자 zzang@kwangju.co.kr

## 반려견 53마리 키우다 학대한 60대 징역형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키우다 학대한 일명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동물과 수집가의 합성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광주시 남구의 한 건물에서 키우던 개 53마리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께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서 푸들 및 말티즈 5마리를 키우기 시작했다. 이후 A씨는 유기견까지 데려다 키웠고 개들이 새끼를 낳으면서 지난 1월 53마리로 늘었다. 하지만, 사료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이중 30마리는 영양실조에 걸렸고, 사육 공간은 분변·오물·쓰레기가 넘쳐 악취

가 나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개를 물어 죽이는 개의 머리를 몽둥이로 때리기도 했다. 병든 일부 개는 치료를 하지 않아 방치됐다. 30마리의 개는 치주염 등의 질병에 시달렸고, 코로나 감염, 심장병, 피부천공, 탈장, 안구 소실 등의 질병에 걸린 개들도 발견됐다.

A씨는 "개들에게 충분한 사료와 물을 제공하고 종종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다수의 개를 기르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병원치료도 받게 한 점은 확인되나 A씨의 경제적 여건으로는 다수의 개를 기를 수 없어 보이고 적절한 공간과 식사, 필수적인 병원 치료 등을 제공하지 못해 다수의 개를 학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5·18 공로자회 회장이 부상자회 전 간부 고소

### "운영 개입해 금전·정신적 피해" 횡령·배임·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성국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 회장이 5·18부상자회 전 간부 직원 A(62)씨를 횡령,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고소장은 A씨가 5·18공로자회와 5·18부상자회의 우호적인 관계를 이용해 5·18공로자회 운영에 개입해 사익단체처럼 이용하고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장을 제출한 정 공로자회장은 "A씨가 지난

해 12월 5·18공로자회 회장 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주도하고, 이를 빌미로 5·18공로자회 임원 구성 및 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에는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국가 지원 공용차량 구입비 3000여만원으로 고급 차를 사도록 요구하고, 이를 한 달여만에 되팔아 700여만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도 됐다. 차량 매매대금 중 일부는 A씨의 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했다는 것이다.

A씨는 5·18공로자회 명의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명절 선물' 명목으로 공금 900여만원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한 이전에 진행한 사업으로 사채업자 등에게

값야 할 빚이 있다며 5·18공로자회에게 적게는 900여만원에서 많게는 15억원까지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협박했다는 내용도 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5·18공로자회 운영에 개입한 적은 전혀 없다"며 "경찰 통보를 받는 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SNS를 통해 오월여머니집 관장에 게 모욕적인 글을 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이용 음란)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 건물 리모델링
- 갈라강판 지붕공사
-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 전원주택신축
- 공장신축
- 징크판넬시공
- 창호(샷시)교체
- 농막
-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